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9. 29.(화)

한국수자원공사, 국제기능올림픽 ‘수처리기술’ 종목 2회 연속 메달 획득

- 최수호 선수, 제48회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수처리기술 동메달 수상
- 지난 대회 첫 메달에 이어 2회 연속 메달, 글로벌 물관리 경쟁력 재확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지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처리기술(Water Technology) 종목에서 최수호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4년 프랑스 리옹 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수처리기술 종목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2회 연속 메달을 수상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한민국 수처리기술의 우수성과 국제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6개* 분야별 숙련 기술을 겨루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능 경진대회로 수처리기술은 2019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식종목 채택 이후 매 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배출하며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 운송·물류, 제조·공학기술, 창의 예술·패션, 구조·건축 기술, 정보·통신 기술, 사회·개인 서비스

국가대표로 출전한 한국수자원공사 최수호 선수는 중국 상하이에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된 경기에서 ▲ 수처리 공정 운영 및 설계 ▲ 수질 분석 ▲ 설비 유지보수 ▲ 수처리 공정 구성·조립 및 자동화 운영 등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과제별 종합 득점과 수행평가 가점 등을 합산한 결과 최수호 선수는 공동 3위를 기록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높은 기술 집중도와 완성도 있는 경기 운영으로 현지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메달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의 수처리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해 준 우리 선수단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물 분야 숙련 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68개국 1,385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대한민국은 50개 종목에 56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6개, 우수상 16개를 획득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전통적인 강세 분야인 IT 직종뿐만 아니라 수처리기술 등 다양한 직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숙련 기술의 높은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붙임 관련 사진 4매(별첨). 끝.

담당 부서	인재개발원 직무교육부	책임자	부 장	박수현 (042-870-7150)
		담당자	차 장	이연미 (042-870-7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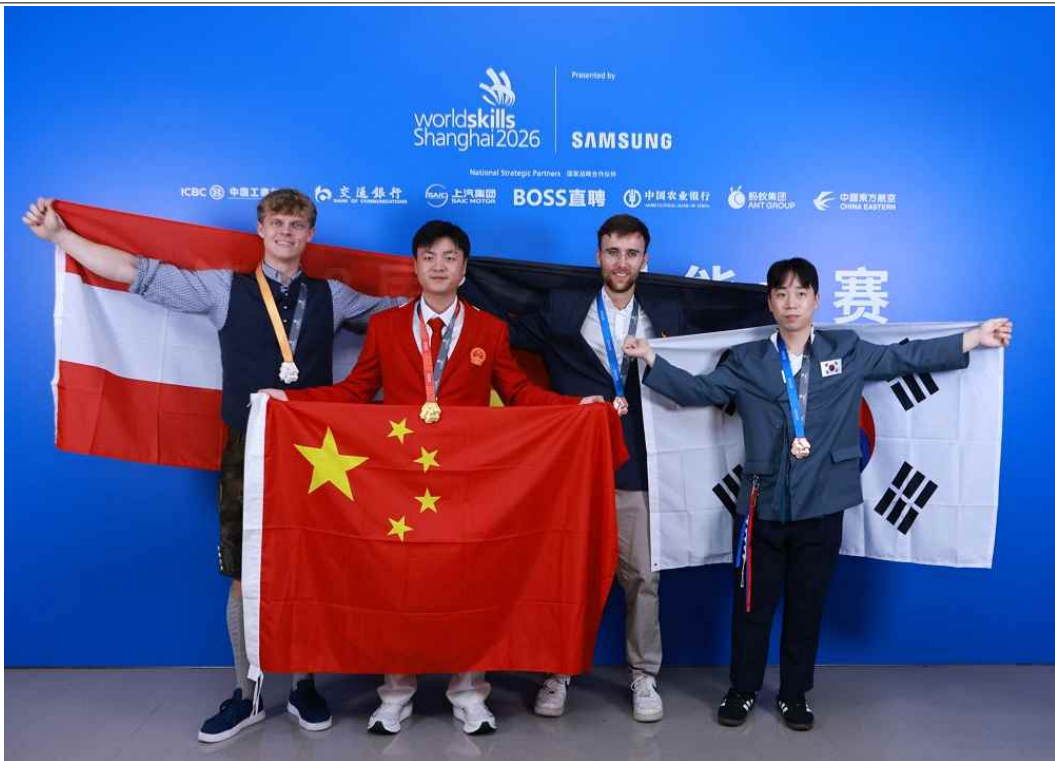
[사진] 1. 9월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한국수자원공사 최수호 선수가 수처리기술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해 '수처리 공정 구성·조립 및 자동화 운영' 분야 경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 2. 9월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한국수자원공사 최수호 선수가 수처리기술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해 '설비 유지 보수: 펌프 분해 조립 및 운영' 분야 경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 3. 9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한국수자원공사 최수호 선수가 수처리기술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해 ‘수질 분석: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 분야 경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 4. 9월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처리기술 종목 시상식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최수호 선수(사진 맨 오른쪽)가 국가대표로 출전해 동메달을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